

“미래에셋, 여수 경도 사업 책임감 갖고 대화 나서라”

시민단체 “부동산 사업만 혈안” 반발에 미래에셋 ‘사업 재검토’ 공표 김영록 전남지사 입장문 “지역사회 우려 공감...양측 불신 해소 노력”

전남도가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미래에셋그룹을 향해 책임감을 갖고 지역민과의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미래에셋 측은 2024년까지 1조5000억원을 투입해 경도 섬 전체를 세계적인 해양관광단지로 조성하겠다고 나섰다. 관광시설 조성은 뒷전에 두고 숙박시설 분양 등 부동산 사업에만 열을 올린다는 언론·지역사회 비판이 줄기차게 이어지자 돌연 사업 재검토를 공표한 바 있다.

전남도는 27일 김영록 전남지사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미래에셋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이다. 책임 있는 자세로 지역민과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여수지역사회를 향해선 “최근 미래에셋이 레지던스 호텔 건립을 우선 추진하면서 여수 지역사회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경도관광단지 개발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를 바라는 여수시민 여러분의 충심이라고 생각한다. 미래에셋을 믿고 대규모 투자를 실현하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김 지사는 “지난 20일 미래에셋이 (여수시의회에서) 개발사업을 재검토한다고 발표한 것에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갑작스러운 소식에 실망과 충격을 받았을 여수시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경도 해양관광단지 조성 사업이 지역사회 우려와 같이 수익성 위주의 사업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관련 법령에 따라 지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또한 사업이 조속히 재개되도록 사업 시행자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여수 경도해양관광단지 개발사업은 미래에셋이 1조 5000억원을 투자해 호텔과 콘도, 인공해변, 해수풀, 케이블카 등을 갖춘 세계

최고 수준의 복합리조트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전남과 여수가 세계적 해양관광 중심지로 도약할 발판이 될 사업으로, 3조 4000억원의 경제효과와 3800여명의 고용효과로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전남도는 기대하고 있다.

미래에셋 측은 투자 결정과 관련해 김 지사는 “코로나19로 세계 경제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대규모 관광개발 투자는 기업에도 어려운 일로, 그 자체로 지역에 대한 기여라고 생각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운영 초기 3년간 2000억원의 적자를 감수하고 투자를 계속한 것은 세계적 수준의 관광단지를 만들겠다는 의지이자, 경도 개발 이익을 지역에 100% 재투자하겠다는 지역사회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지사는 “전남도는 투자기업이 성공해, 지역발전이 이뤄지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책무가 있다”며 “앞으로 경도가 세계적 해양관광단지가 되도록 미래에셋, 지역사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그간의 불신을 해소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계엄군 도청앞 발표는 의도적 사살 학살자 법정 세우는 노력 기울여야

김종배 5·18 당시 도청 항쟁지도부 총위원장 5·18기록물 유네스코 등재 10주년 포럼서 주장



1980년 5월 21일 계엄군의 전남도청 앞 집단 발표는 지금까지 기소하지 못했지만, 현재로서 유일하게 학살자들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건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오후 광주 5·18민주화운동기록관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10주년 기념 제19차 광주정신포럼’에서 김종배 5·18당시 도청 항쟁지도부 총위원장(전 국회의원·사진)은 이 같이 주장했다.

임장이지만, 진압군의 양심선언에 따르면 병사 2명은 시민군 차량이 아닌 후진하는 장갑차에 치어 숨졌을 뿐만 아니라 살탄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지급됐다는 것이다.

김종배 의원은 또 한때 사태이자 폭도로 몰렸던 5·18민주화운동이 국가가 기념하는 우리의 소중한 역사가 된 것은 모두 5·18민주화운동 당시 시민들이 스스로 질서를 유지했고, 도청항쟁 지도부는 치안유지반을 구성해 활동하는 등 항쟁 기간 범죄 하나 없는 공동체를 구현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 5월 22일 시민군들은 하루 종일 무기를 회수해 오후에 무기회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즈음 5월 21일에서 22일 사이, 수원 제10전투비행단에서는 전투기들이 광주로의 출격을 대기하고 있었다는 조종사 김 모 대위의 증언을 감안하면, 자칫 광주시민들이 무질서했을 경우 폭격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분석했다. 광주 시민들의 뛰어난 질서의식과 현명한 대처가 더 큰 재앙을 막았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의 증언을 종합하면 계엄군에 의해 아산에 가매장됐던 시민의 시신 200여구는 국군통합병원 임시화장시설에서 소각됐으며, 다만 계엄군은 가매장 시신의 지문을 채취했기 때문에 어딘가에 있을 지문 채취 기록을 찾는 것이 진상조사위원회의 몫이라고 덧붙였다.

/정병호 기자 jusbh@



5·18 부활제... 5·18 최후 항쟁일인 27일 오후 옛 전남도청앞 5·18민주항쟁탑에서 열린 부활제에서 이용섭 광주시장 등 행사 참석자들이 오일영령을 기리며 헌화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전남도, 이름없는 지역 지명 87건 심의·의결

전남도는 지금까지 이름이 없었던 지역의 지명 제정 등을 위해 전남도 지명위원회를 열어 총 87건의 지명을 심의·의결했다. 시·군별로 순천 67건, 구례 11건, 해남 9건이다.

이번 지명위원회에서는 미고시 지명 제정, 일본식 의심 한자 변경, 미사용 지명 폐지 등을 의결했다. 신규 제정 지명은 주로 산, 마을, 골짜기, 교차로 등으로 지금까지는 그 지역 주민끼리만 통용되는 명칭으로 불렸다.

특히 일본식 한자를 가능한 한 사용하지 않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 대표적으로 순천 외서면의 하고재는 ‘下古’가 아닌 ‘下庫’로, 순천 황전면 내구

재는 ‘內九’가 아닌 ‘內齋’로 각각 변경했다. 현재 공사 중인 구례 화엄사 진입도로는 준공에 대비, 11건의 신규 지명을 가결했다.

의결된 지명은 총괄 책임운영기관인 국토지리정보원의 국가지명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임춘보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지명은 그 지역의 지형과 문화적 가치 등을 반영해야 한다”며 “점차 사라지는 우리 지명의 정체성을 찾고 그 지역을 대표할 문화자원이 되도록 지명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임야 단독성 삽니다
지분환영. 010-6837-4700

채분하기 힘든 교환 전국 부동산 하실 분. 010-3605-5000

광주비엔날레 신임 대표 선임 절차 착수

‘공모·지명’ 선임방식 미정

광주비엔날레 재단이 임기 만료를 앞둔 김선정 대표이사의 후임 선임 절차에 착수한다.

27일 광주시에 따르면 재단법인 광주비엔날레는 조만간 인선위원회를 구성해 내년 14회 비엔날레를 총괄할 대표이사를 선임할 예정이다.

김선정 대표는 다음 달 4년(3+1년) 임기를 마치게 된다. 공모 또는 지명 등 선임 방식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지금까지 대표는 주로 지명됐다.

광주시는 코로나19 여파로 13회 비엔날레가 두 차례 연기되면서 올해 열린 탓에 내년 행사까지 남은 기간이 길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인선을

서두른다는 입장이다.

광주시는 또 이번 비엔날레 기간 빛어진 김 대표와 노조 사이에 일어난 갈등과 관련해서는 조사 결과에 따라 대응하기로 했다.

비엔날레 재단 노조는 인사 등과 관련한 문제를 제기하며 국민권익위원회, 광주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해 노동청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다.

김준영 광주시 문화관광체육실장은 이날 시청 기자회견에서 차담회를 갖고 “김 대표는 4년간 두 번의 비엔날레를 치렀고 그 과정에서 문화 중심 도시 광주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며 “서로 상처받지 않고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2021학년도 후기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신입생 모집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 미래 산업발전을 견인해 나갈 고급 인재 양성!

야간과정 운영 (주 1~2회, PM 7시~11시)

- 지역의 산업 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지식 창조 대학원
 - 정규 석사학위 취득 후 박사과정 진학 가능
 - 학점 이수(30학점)로 석사학위 취득 가능(논문제 시행)
 - 본인 업무와 연관된 주제의 학위논문 작성으로 실용적 연구능력 함양과 특허출원 가능
 - 졸업 후 관련분야 연구 및 과제 수행으로 산학간 연구네트워크 구축
- 융복합 시대에 걸맞은 교육 프로그램 제공
 - 창의적 공학설계, 공학프로그래밍 등 혁신적인 교육 과정 시스템 운영
 - 첨단기술훈련을 통한 효과적인 학습자 중심의 교육 실시

주요일정

구분	일정	장소 및 안내사항
입학원서 작성 (인터넷으로만 작성)	2021. 6. 1.(화) 09:00 ~ 6. 10.(목) 18:00	산업대학원 홈페이지(http://gsit.jnu.ac.kr) 원서 작성(인원) 후 원서 등 출력
구비서류 제출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제출)	2021. 6. 1.(화) 09:00 ~ 6. 10.(목) 18:00	• 제출장소 : 산업대학원 행정실 공과대학 4호관 202호 • 제출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 우)81186
전형일시	2021. 6. 23.(수) 10:00 ~	지원학교(전공)에서 지정된 장소 (신분증 반드시 지참)
합격자 발표	2021. 7. 7.(수) 10:00 예정	산업대학원 홈페이지

모집학과(전공)
건축공학과/기계공학과/산업공학과/재료공학과/전기전자컴퓨터공학과/토목공학과/화학공학과/환경에너지공학과/친환경정보학과/식품공학과/지역환경자원공학과/전자컴퓨터공학과(계약학과)

문의 |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 · 전화 062-530-1607 · 팩스 062-530-1942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http://gsit.jnu.ac.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주 요양병원 「급매매」

토지면적 | 10,162㎡
건물면적 | 7,296㎡ (총 3동)

- ▶1동(2017년 준공) : 3,507㎡
 - 지하 1층 ~ 지상 4층
 - 베드 수 : 200베드
- ▶2동(2012년 준공) : 2,336㎡
 - 지상 1층 ~ 지상 4층
 - 현재 주간 요양 보호 30명
 - 요양일 90명
 - 추첨용도 : 암 병동 또는 치매 병동
- ▶3동(2008년 준공) : 1,453㎡
 - 지상 1층 ~ 지상 3층
 - 현재 장례식장 운영 중

용도지역 | 자연녹지지역
매매가격 | 118억원
상담문의 | 010-3605-8564 (임선희)
나주시 우정로 56 리치타워 A동 101호
전남공인중개사

토지, 건물, 정원수(아파트용) 매매

1. 토지와 아파트용 정원수 포함

순창 금과 방축리 담양 경계 계획관리지역, 전 9,190㎡
소나무 15년생 외 7종 2천여주 아파트 조경수 포함, 광주 간 25분 산설 4차선 국도 근접. 전원주택, 펜션, 다목적 사용가, 포장도로 접 ㎡ 7만원

2. 상가건물

- 광주 북. 오치 4층 대 384㎡ 연 998㎡ 사거리 코너 요지 매 16억8천만원 보 2억, 월 6백6십만원
- 광주 동. 충장로5가 상업지역 도매상 주동로 5층 승강기 유, 대 222㎡ 연 956㎡ 보 8천만원 월 4백만원 가, 매 13억원 전면 18m 접
- 광주 동. 대인동시장 야시장 주동로 코너 점포 8칸, 대 238㎡ 연 257.8㎡ 주변 아파트 9천여세대 건축 중, 투자 효과 최상 매 9억9천 보 1천6백 월 2백만원, 상업지역
- 광주 북. 문흥동 3층 상가 대 660㎡ 연 2,000㎡ 상업지역 1층점포 10칸 매 51억원 (보 5억5천만원 월 2천2백만원 포함)

3. 전원주택, 가든, 카페 등 용지

- 순창 금과 고례리 광주간 25분 담양 경계 계획관리지역, 대지 1,163㎡(답 포함) 건물 66㎡ 벽돌조 스타라브즈, 수리사용가, 산아래 마을 뒷 아미산 바라본 정남 매9천9백만원
- 담양 금성 덕성리 광주간 20분 메타가로서길 약 70m 접, 계획관리지역 전 4,363㎡ (답 포함), 덕진산자락 정남 경관수려 ㎡ 13만원
- 화순 북면 옥리 금호온천 입구 도로접 계획관리지역, 전 531㎡ 매 ㎡ 18만원

국민공인중개사 대표 정중기 ☎ 010-3635-7939 광주 북구 두암동 561-5 삼성출플러스 길 건너편 동광주빌딩 내